

애피아는 “지금 당장은 옳은 것으로 믿고 있는 나의 원리에는 싱어의 원리가 주장하는 극단적 결과는 없다.”고 말한다.

싱어: “만약 우리가 덜 나쁜 일을 희생시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애피아: “만약 우리가 정말로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책임자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애피아: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든지 그 의무들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선택적이든 비선택적이든 정체성에 따라 묶인 많은 집단들인 가족, 친구, 민족을 우리가 편애한다는 사실과 조화되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나의 기본 의무가 무엇이든, 그것은 내 가족, 내 친구, 내 나라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는 만큼 충분할 리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는 논증이 그 모든 생명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애피아: “우리가 오페라를 관람하러 할 때 다른 사람들도 오페라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아이들을 구할 수도 있었을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긴급 구호원칙(싱어의 원칙)을 무시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아이들의 죽음과 특별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오페라를 관람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하는 일(오페라 관람)을 하는 것과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동일하다는 논리는 거부되어야 한다.

세계 시민주의자의 진정한 대응이라면 먼저 ‘왜’ 죽어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세계 시민주의는 내 나라 또는 내 지역의 일자리를 보호해 준다는 이유로 지지한 바로 그 정책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어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요구한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황폐해진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애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시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함 •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국경을 초월해 다른 사람과 연대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적 헌신을 요구하는 세계 시민주의” : 민족주의자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친구나 이웃에 냉담하고 공평무사한 극단적 세계 시민주의 비판 •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지닌 사람들 간 대화의 중요성 강조: 서양 vs. 비서양 비판 • 이방인들이 우리와 감정이 같지 않음을 인정하는 이방인에 대한 책임감 강조: 서로에 대해 ‘익숙’해지기 위해서 대화 중요 • 민족 공동체 차원의 ‘공존’의 습성을 인류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할 것을 강조함
누스바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소속감, 자국중심 배타주의 극복하고 보편적 인간애를 증시함 •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는 임의적 특성이므로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정의와 선에 대한 합리적 추론 능력을 함양해야 함